

이효석 소설의 자연관

— 193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

허 남 춘*

목 차

1. 자연의 개념
2. 이효석의 자연관
3. 자연과 삶의 거리
4. 자연에서의 성
5. 意構된 자연
6. 마무리

1. 자연의 개념

自然이란 말의 의미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그 개념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자연이라 함은 우주의 森羅萬象 즉 저절로 발생하는 것, 출생되는 것, 스스로의 성장에 맡겨진 것들의 총체이다.” 문학과 철학의 측면에서 본 자연의 개념은 본래는 ‘사람이나 사물의 고유한 성질

*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學科 教授

1) H·리케르트, 尹明老 역, 「文化科學과 自然科學」(三星文化財團出版部, 1973), p.52.

이나 본질을 뜻하였으나, 그 고유성을 파괴하고 만든 인위적 인공물과 구별하는 의미'로 정의된다.”

그러나 문학 작품 속의 구체화된 자연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수용태도를 증시해야 한다. 문학은 자연에 대해 느끼는 감정, 곧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감정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 이외의 자연물 또는 풍경에 대한 감정 내지 이것을 중심으로 한 심적 상태, 특히 미적 세계에 있어서 가장 순수하게 나타나는 자연 감정이 문학에 있어서의 자연이 갖는 관계일 것이다. 이 관계 속에서 자연은 인간에 의해 재현되거나 再構成되어 표현된다.

자연이 작품에 도입될 때 한 작가의 자연에 대한 시각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자연에 대한 시각은 '자연과 인간과의 거리' 혹은 '融和'를 통해 자연 속에 자아를 용해시켜 가는 形象化 과정이나 자아 속에 자연을 용해시켜 가는 형상화 과정을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형상화 과정을 통해 작가가 의도하는 주체애로의 귀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바로 이 과정과 귀결이 자연이라는 소재에 의해 예술적 표현 효과를 획득함으로써 작품적 성과를 올리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자연을 소설의 중심 소재로 수용한 이효석의 자연관, 자연과 삶의 거리, 그리고 그가 그려 낸 자연이 '憲構된 자연'일 것이라는 추론을 김유정 소설에 나타나는 자연관과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2. 이효석의 자연관

이효석에 대한 논의는 동반자 작가 시결과 1933년 이후의 순수문학기로 양분되어 이루어진다. 한편 그의 소설 세계의 근원은 크게 둘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동양적 질서관 내지 자연관에 바탕을 둔 主情的이고 感傷的이며, 靜的이고 신비적인 주체적 자아와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자아 위에 세워진 서구적 전통의 그 분방성과 자유에의 지향이다.” 본고에서는 이효석

2) 『哲學大事典』(학원사, 1964), p.927.

3) 홍경표, 『한국근대소설 작가의식연구』(형설출판사, 1984), p.264.

소설 중에서 상징적이며 서정적 자연을 배경으로 했거나 소재로 택한 작품을 대상으로 삼았다.

일단의 그의 소설은 세계를 그의 특이한 원시적 공간에 투영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원초적 상태와 본연적 세계에 대한 추구는, 그의 작품세계의 특색으로써 지적되고 있는 많은 나무, 풀, 딸기, 능금, 그리고 나귀, 돼지, 개, 산양, 조개, 물고기 등의 소재들이 작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서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한다.

人爲의인 것을 떠나 野生の 健康美를…… 인간의 본연의 것, 건강한 생명 의 動力과 신비성을…… 나아가서는 생명의 신비성을 구명해 보려고 하였음 에 지나지 않는다.⁴⁾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현실을 초월한 원초적 세계에의 지향’⁵⁾ 또는 ‘인간의 원초적 원시성에 마음을 달래보려는 향수의 문학’⁶⁾이라는 평가는 원초적 신비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이효석 자신의 말과 상통한다고 하겠다. 이효석 작품 세계의 미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심리적 요소로서는 表象이나 意志에 있었다기보다는 감각적이며 동시에 想像的인 데 있다고 할 수 있다.⁷⁾ 그의 작품이 정서적 분위기나 감정을 자아냄도 이 미의식과 관계되는데 감각적인 문장 표현으로 섬세하게 이루어진 「메밀꽃 필 무렵」, 「산」, 「들」 등 몇 작품을 예로 들어 보겠다.

밤중을 지날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같은 달의 숨소리가

- 4) 이효석, 「현대 단편소설의 相貌」(유기룡, 「이효석론」, 「현대작가론」(형설출판사, 1979), p.186에서 재인용
- 5) 유기룡,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한국현대소설작품론」(문장, 1981), pp.211-212.
- 6) 조건상, 「김유정과 채만식 소설의 특질」, 「도남학보」 제3집(도남학회, 1980), p.33.
- 7) 유기룡, 「이효석론」, 「현대작가론」(형설출판사, 1979), p.187.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호젓한 달
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메밀꽃 필 무렵」).

성씨 처녀와 인연을 맺은 그 날과 같이 보름달이 메밀밭을 비추는 정경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달의 숨소리는 손에 잡힐 듯하다. 이토록 달빛에 감동하
여 걷고 있는 세 사람은 회고적 서정으로 동화되고, 그들 몸이 자연에 일체화
되어 있다. 이러한 감각은 「산」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심은 이제 새삼스럽게 그 향기를 생각하고 나무를 살피고 하늘을 바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것은 한데 합쳐서 몸에 함박 젖어 들어 전신을
가지고 모르는 곁에 그것을 느낄 뿐이다. 산과 몸이 빈틈없이 한데 얼린 것
이다(「산」).

“산과 몸이 빈틈없이 한데 얼려 있어서 자신의 몸이 “한 포기 나무와도
같은 느낌”이며, “두발은 뿌리요 두 팔은 가지”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
는 자연과의 일체감을 시적·서정적 경지로 승화시킨 이효석의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감정은 마을에서의 생활과 대비로 나타나는 듯하다. “산은
마을보다 몇 갑절 살기 좋은가”, “거리의 살림살이라는 것이 더 한층 어수선
하게 여겨질 뿐이다”라는 독백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연이 ‘현실을 초
월한 원초적 세계’⁸⁾라기보다는 현실 생활·현실적 문제·현실 시간을 도피한
세계라는 것이다. “들에서는 공포도 없이 잠들 수 있었으나 마을에서 공포가
왔다”(「들」)에서도 무작정 현실을 피해 자연의 품에서 안온함을 느끼는 ‘나’가
있다. 이 공포는 ‘도피’를 적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물론 그 자연은 신비
한 세계이며 야생의 세계이고 건강한 생명을 느낄 수 있는 세계이다. 왜냐하
면 모순된 현실세계에서는 그 자연을 느낄 수도 향유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8) 註 5와 同

흙빛에서 초록으로—이 기막힌 신비에 다시 한번 놀라 볼 필요가 없을까.
(「들」)

몸은 한 포기 나무다. 별안간 부드럽 솟아오르는 힘을 느끼고 증실은
벌떡 뛰어 일어났다. (「山」)

이효석은 자연에는 이런 신비한 힘이 있는 것으로 사유한 까닭에 하늘·바다의 푸른색이 나무의 초록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산」에서의 증실은 산에서 나무와 일체감을 느끼고, 마을에서는 갖지 못했던 힘이 별안간 솟아남을 느낀다. 이효석에 있어 자연은 무궁한 힘의 상징이다. 원초적인 힘을 느낀 것은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바탕으로 한 具象이다. 자연을 느끼는 감정이 개성적으로 형상화되면서도 그 자연에 무한한 힘을 부여하여 초자연을 긍정한다. 즉 자연과 초자연의 감정이 공존하는 것이다.

이효석은 「山」에서 “무슨 까닭으로 산이 이렇게도 그리울까”라고 하며 자연을 그리움의 대상으로 그리고 있으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란 곧 산천을 사랑하고 별판을 반가와하는 심정이 아닐까”(「들」)라 하여 도시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 고향이 ‘산’과 ‘들’의 자연임을 드러낸다. 한편 “산이 숨을 쉰다”라고 하여 자연에 생명이 잠재한 것으로도 사유한다.⁹⁾ 현실에서 멀리 도피하여 만난 자연은 至高至善의 안식처이며, 그의 소설 속의 자연에는 신비감이 주된 정조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의식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은 현실을 도피하기에 적절한 곳으로 형상화된다.

9) 이재선 교수는 「동물의 문학적 발상과 상징」(『우리문학은 어디에서 왔는가』(소설문학사, 1986), p.417에서 그의 동물관의 기저에는 토렘이즘의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서는 그의 소설에 Animism적 의식이 잠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3. 자연과 삶의 거리

자연에 대한 시각은 자연과 인간의 거리 혹은 融和를 통해 자연 속에서 자아를, 아니면 자아 속에 자연을 용해해 가는 하나의 형상화 과정을 보여주게 된다. 효석에 있어 자연은 편안한 곳, 매력이 있는 곳, 동질감이 느껴지는 대상으로 수용된다. 자연과 '나'는 운명적 동질성을 느끼고, 자연을 매개로 남녀가 쉽게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때의 자연은 주제 형상화에 긴밀하게 작용한다. 「豚」, 「수탉」, 「가을과 山羊」, 「메밀꽃 필 무렵」 등에서 등장하는 동물은 주인공의 삶을 그대로 투영해 보여 주는 대상들이다.¹⁰⁾ 즉 그들 동물과 주인공의 운명적 동질성이 표현되고 있다. 「메밀꽃 필 무렵」에서 허생원과 동이, 나귀와 강릉집 피마새끼의 관계가 얽혀 구성적 상징(constitutive symbol)을 이루고 있는 것도 이효석 소설의 일 특징이라 하겠다.

이효석은 1931년 6월 카프의 제1차 검거 사건과 중학교 시절의 은사인 일본인 구사후카의 주선으로 총독부 경무국 검열계에 취직했으나 주위 사람의 지탄으로 보름도 못 되어 사직하고 전향하게 된 뒤, 처가가 있는 鏡城 농업학교 영어 교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도시와 결별하고 자연 속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삶이 「둘」의 학보에게 드러나는 듯하다. “조직의 힘도 장하거니와 그것을 꾸미는 한 사람의 힘이 크다면 더 한층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라 하여 일제에 대항하는 조직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을 현실문맥 속에서 굳건히 하려는 작가의 의지가 나타나며, “제일 장하고 제일 크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훌륭하고 제일 바른 것”이 ‘힘’이란 발언은 효석의

10) 자연은 비인간적인 물질인 동시에 내가 아름답게, 또는 무섭게 실제로 체험하는 것도 된다. 자연은 무의미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순간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무언가 말하고 있는, 또는 내가 말을 시킬 수 있는 상징적 기능도 있다. (이상섭, 「文學批評用語辭典」(민음사, 1976), pp.240-241.)

삶에 있어 건전한 의식이 드물게 엿보이는 면이다.¹¹⁾

그러나 효석에게 있어 자연을 배제한 삶의 모습이란 퇴폐적 현실주의를 느끼게 한다. 그는 자연에 대한 감정을 일상적 삶 속에 구체화시키지 못한 채 자연과 일상적 삶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즉 자연 속의 삶과 일상 속의 삶이 이원적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자연과 벗하게 땀은 생활에서의 퇴각을 의미하는 것일까.

(「들」)

학교를 쫓기우고 서울을 물러가게 된 까닭으로 자연을 사랑하게 된 것일까.

(「들」)

가을을 보내고…… 적어도 꿈이 가고 생활의 때가 온 듯하다.

(「落葉記」)

자연은 삶의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낙엽이 지고 낙엽을 태우고 난 후에 남는 것이 생활이라 생각한다면 생동감으로 충만된 녹음의 계절과 자연은 꿈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자연이란 현실 도피처의 구실이 아닐까. 비록 자연이 도피처이긴 하지만 그나마 자연에서의 삶은 건강함과 생명의 신비성을 구현하려 하고 있으며, 자연과 동화되어 순화된 정서를 갖게 된 그는 시적·서정적 경지를 소설 속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山精」에서는 또 다른 자연을 만나게 된다. 술과 고기와 석쇠를 들고 등산을 가서는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기도 하고 浩然之氣를 운운하기도 한다.

11) 이와 같이 자연 속에서 현실을 바라 보는 태도 이외의 경우에는 현실을 자각하는 태도가 종종 엿보인다. “강하고 약하고 이기고 지고—이 두 길뿐. 지극히 간단하다. 강약이 부동으로 억센 장골 앞에서는 약질은 육을 보고 그 자리에 폭삭 쓰러져버리는 그 일장의 싸움 속에서 우연히 시대를 들여다 본 듯 하여서 너무도 짙은 암시에 현보는 마음이 얼떨떨하였다.”(「장미 병들다」)

이윽고 고기 굽는 연기가 피어 오르고 양념 냄새가 사방에 흩어지면서 조그만 살림살이가 벌어지고 사람의 경영이 흙과 초목 사이에 젖어든다.

(「山糲」)

고기 굽는 연기와 양념 냄새가 흙과 초목 사이에 스며드는 광경에 흐뭇해하며 인간과 자연의 융합과 친화를 느낀 것일까. 심지어 고기를 구어 먹던 등산을 “별로 신기할 것도 없는 평범한 행사”로 치부하고 “그것이 항간이 아니고 산인 까닭에 순간순간이 기쁨에 차진 것이요 감격에 넘치는 것이었다”고 토로한다. 일상이 아니고 자연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에 기쁨이고 감격이라는 감회는 역시 일상적 삶과 자연에서의 삶을 괴리시켜 보는 작가의 일면이다.

한편 ‘고기를 구워 먹던 등산’을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 들인 것은 감정의 과잉 상태로 느껴지고, 30년대의 움울한 식민지 상황과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방탕이다. 산의 정기에 흡족해 하고 이 기분은 기생집으로 연장된다. 이 기생집 연회를 마치고 주인공 ‘나’는 “은전히 야생의 날이었다. 문명을 벗어나서 야생의 부르짖음만이 명령하는 날이었다”고 하루를 평한다. 그렇다면 효석에 있어서의 자연은 쾌락의 도구이며, 自評 속에 나타나는 “人爲的인 것을 떠나 野生의 健康美를…”의 野生은 퇴폐적 현실주의를 감추려는 변명의 구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의 작품 「가을과 山羊」에서의 호텔 파티·미주 유학, 「季節」에서의 해수욕, 「落葉記」에서의 진한 커피 향기도 그러한 퇴폐적 현실주의의 일면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¹²⁾

12) 물론 도시를 배경으로 한 삶의 양식을 제시하고, 도시의 데카당스와 도덕적 혼란, 물질적 쾌락주의의 생활이 만연한 사회의 병든 俗惡性에 대한 한 측도적인 의미(이재선, 「이효석의 작품 세계」, 『한국문학전집』7 (삼성출판사, 1985), pp.384-385)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작가가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나 자연을 바라 보는 시각에 도피적이고 낭만적이고 서구적이고 몽환적인 일면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낙엽 연기에서 잘 익은 깨금의 맛을 느끼는 반면, 진한 커피 향기를 느끼기도 하고 이 감각은 백화점에서 커피를 사서 집으로 돌아 오는 느낌과 목욕하러 몸과 마음을 푸근히 녹일 때의 느낌으로 진행되고, 이를 일상 생활로 규정한다. 그리고 스키를 시작해 보려는 계획,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울 계획을 '생활의 생각'이라 자부하고 있다. 그의 소설이 자연 친화의 감정을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화려하고 퇴폐적인 생활의 감격을 느끼게 한다. 효석에 있어 삶과 자연의 거리는 그의 화려한 '생활의 생각'과 '30년대 암울한 식민지 상황'과의 거리에 비견된다.

4. 자연에서의 성

일제의 억압과 억압적 제도는 한 시대를 본능 속에 살게 한 것이 아닐까. 효석은 현실에서의 도피를 감행하고 본능적 삶으로 자기 치유를 하는 듯하다. 여기에서 원시 감정이 표출된다.

그의 소설에 나타나는 도시에서의 성은 물질적 쾌락주의에 젖어 있는 모습이다. 육체적 타락(「장미 병들다」)이나 동성애(「花粉」) 등 도시의 쾌락적 불건전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도시의 불건강성에서 더 이상의 가치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효석은 자연에 매력을 느꼈을 것이고, 자연에서의 성을 그리게 된다. 자연 속에 인간이 동화되고, 성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매력이었고 실제 그의 소설 속에서 이런 원시적인 자연애를 발견하게 된다.

「메밀꽃필무렵」에서 목욕하러 나간 허생원이 보름달에 쫓겨 방앗간으로 들어가 성씨 처녀와 만나고 관계를 갖게 된다. 효석에게 있어 여름은 가장 자연적인 계절이며, 문화나 금기의 옷을 벗고 인간의 신체가 자연 원리를 구현하는 계절이다. 따라서 그의 문학은 자연을 매개로 하여 에로티시즘의 지향을 적지 않게 드러낸다. 「들」에 나타나는 에로스의 행위는 자연스럽고 獸性的이다.

개울녘 풀밭에서 한 자옹의 개가 장난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을 집내지 않고 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거리는 법 없이 자옹은 터놓고 마음의 자유를 표현할 뿐이다. / 그것이 그렇게도 수월할 리 있을까. 돌 복판에서는 수월한 법인가. / 나는 속으로 한결같이 돌의 성격과 미술과도 같은 자연의 매력이라는 것을 생각하였다. (「돌」)

풀밭에서 자옹의 개가 자연스럽게 관계를 갖듯이, 주인공 학보와 옥분이기도 “아무 마음의 거래도 없던 것이 달빛과 달기에 꼬임을 받아” 그 자리에서 쉽게 행위를 갖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자연의 매력 때문이다. 서울에서 학교를 쫓겨나 고향에 돌아 온 주인공 학보는 자연에 마음을 달래고 자연에 몰입된다. 문수가 경찰서에 끌려 가고 현실상황은 ‘나’를 조이지만 자연의 들은 푸근한 안식처가 되어준다. 일제 하의 현실 속에서 좌절이 생겼으나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연에 도피하여 건강한 생명력을 구하려는 작자의 삶이 ‘나’를 통해 엿보인다.

그러나 자연에서 얻은 성의 자유는 가식이었다. 「들」에서 학보가 옥분과의 관계를 가진 후 옥분의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책임 문제는 생기지 않는가」 하며 마음이 어수선해지는데, 문수와 옥분의 관계를 알고 안심과 감사의 감정을 느낀다. 옥분과의 관계를 자연의 매력으로 느끼며 기뻐하던 학보는 무거운 짐을 벗어 놓은 듯한 율가분함을 느끼며 옥분의 허랑한 태도를 질책하게 된다. 주인공 학보는 자연 속에서 맺어진 옥분과의 관계를 자연의 매력으로 느끼고, 자연에서의 자유로 사유하는 반면 옥분의 행동은 허랑한 태도로 바라본다.

이효석 소설에서 여성은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여성은 자연 속에서 배제된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를 남성은 자연스러움으로, 여성은 허랑한 감정으로 처리하며 여성을 物俗化시킨다. 「장미 병들다」에서 현보가 남죽과 관계를 가진 후, 그녀의 “허랑한 감정을 의심”하는 데에서도 여성의 物俗化가 잘 나타난다.

이효석은 자연 속에서 은근함과 덤덤함, 친애의 감정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허무의 감정도 느끼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연 친화의 감정이 일상적 삶에서부터 도피하고 유리된 가운데에서 얻어진 감동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일상적 삶과 자연에서의 삶의 괴리에서 연유하는 갈등이 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남녀의 성적 행위도 자유와 허무로 갈라 놓은 듯하다.

결국 그의 30년대 소설은 인간과 자연의 통일적 화해를 모색¹³⁾ 하였으나, 자연의 안주를 삶의 기저로 설정하고 인간 삶 자체보다 자연에 중점을 두다 보니 그 모색은 일상적 삶과의 거리만 노증시킨 결과를 낳았다고 하겠다.

5. 意構된 자연

이효석의 '달밤'에는 情感이나 감상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고¹⁴⁾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나 "소금을 뿌린 듯이 호뭇한 달"과 같이 적유법을 즐겨 쓰고 있으며, 달을 주관화하여 美化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의 소설에는 서정적 惝恍さが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소설의 재재가 되고 있는 '달밤'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는 조금도 의식할 수 없고 감정과 정서를 바탕으로 한 서정성이 그 특유한 미의식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시대의 同郷 작가인 김유정에 있어서는 사뭇 다르다. 그의 소설은 "토속적인 미와 서정성, 어두운 면을 지닌 해학"¹⁵⁾을 그 특징으로 한다. 김유정의 '토속적인 미와 서정성'은 이효석의 '서구적, 장식적인 미와 서정성'과 큰 대비를 보여 주고 있으며, 어려운 농촌 현실을 어두운 해학으로 그려내므로 이효석 소설의 추상적·비유적 특성에 상대되는 구체적·상징적 특성을 갖는다. "달빛에 비껴어 검붉은 얼굴이 해쓱하다"(산골 나그네)와 같이 달은

13) 이재선, 위의 논문, p.385.

14) 김동리 외, 『小説作法』(文明社, 1969), p.267.

15) 金永和, 「김유정의 소설연구」, 『語文論叢』 제16집(고려대학교 국문학과, 1975), pp.133-135.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홍성사, 1978), pp.370-372.

이처럼진 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다. 즉 김유정은 현실 인식을 통한 구체적 체험에 주력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해학(풍자)보다는 어두운 해학을 보여줌으로써 일제의 검열을 피해 좀더 당대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자연을 구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산기슭에만 오르면 만져질 듯하던 것이 산허리에 나서면 단번에 구만리를 내뺌는 가을 하늘. 산속의 아침 나절은 즐고 있는 짐승 같이 막막은 하나 숨결이 은근하다”의 묘사에서 느껴지는 효석 특유의 감각과 채취는 우리 고유의 재래식 감각이 아니라 외래적인 서구식 감각이 혼련된 작가의 눈을 통하여 다분히 주관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¹⁰⁾ 그러나 김유정에 있어서는 작가와 ‘나’의 거리가 엄격하게 유지되며, 인물이 등장하는 배경 묘사에 있어서도 우리 고유의 정서를 담고 있으며, 당대의 현실과 그대로 조화를 이루며 나타나 있다.

효석에게 있어 고향은 지극히 피상적이고 한편으로 意構的이다. 「鄉愁」란 작품에서 시골이나 다녀 오겠다는 아내의 말은 다음과 같다.

“제가 지금 제일 보고 싶은 게 무언데요. 울밀의 호박꽃, 강남콩, 과수원의 사과, 바다로 열린 벌판, 벌판을 흐르는 안개, 안개 속의 원두꽃……”

그러나 집에 돌아 왔을 때에는

“어느 새 이렇게 만발이야 - 카카라, 살비아, 프룩스, 에스더, 따리아, 국화, 해바라기 - 은뚱 한창이니”

“호박꽃보다 못 하지 않지”

“호박꽃두 늘 보니까 싫증이 났어요”

“다시는 시골을 간다구 발설을 하구 법석을 앉으셨다?”(「鄉愁」)

16) 이강언, 「한국근대소설논고」(형설출판사, 1983), p.235.

라고 한다. 시골에 다녀 온다는 아내가 생각하는 고향의 자연은 관념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외국 꽃 이름을 나열하는 데에서 드러난다. 호박꽃, 강낭콩, 파리 등은 관념적 동경물이며 카카라, 살비야, 프록스 등은 현실적 애호물이다. 이 꽃들에 대한 아내의 생각을 통해, 시골의 정겨움보다는 도시적 장식에, 한국적 정서보다는 서구적 정서에 길들어 있는 작가의 세계관을 읽을 수 있다. 그가 찾는 고향의 자연이 관념적이라면 그가 현재 향유하는 자연은 心意에서 擬構된 자연인 것이다. 意構된 자연 감각은 '歷史的 現在라는 時制'가 망각되어 '實在의 道'가 없고 그래서 생동감은 감소된다.¹⁷⁾ 이러한 意構된 자연 감각은 그의 현실을 대하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인간 존재나 현실 인식에 눈을 돌리지 않은 효석 소설의 한계일 것이다.

6. 마무리

우리 시에는 자연 현상을 그릇되게 관찰하며, 아니 관찰조차 한 일이 없는 듯한 시가 많으며¹⁸⁾ 소설의 경우 배경에서조차 자연 환경이나 자연 현상의 묘사가 극히 드물다¹⁹⁾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소설에 있어서의 자연은 그 도입이나 묘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작품을 이끌어 가고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시키는 핵심적 이미지의 근원으로, 그리고 이 이미지에 의한 미적·정서적 효과로써 작품에 유기적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효석의 소설은 분명 자연을 매개하여 주제를 형상화시키고 미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玩賞의 단계를 넘어 서서 주제 형상화나

17) 최진원, 「韓國古典詩歌의 形象性」(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8), pp. 131-132.

18) 이승우, 「한국 시인들의 무식한 자연묘사」, 『샘이 깊은 물』(1987.6), p.58.

19) 최미정, 「국문학에 나타난 자연관의 역사적 고찰」, 『韓國學論集』 제15집(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88), p.158.

미적 접근에까지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다만 효석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삶과 자연과의 거리, 意構된 자연관을 파악해 보고자 한 시험적인 글이다.

이효석 소설에는 자연관에 바탕을 둔 정서, 자연의 원초적 신비성과 생명력이 담겨 있다. 그러나 자연에 도피하여 건강한 생명력을 구하려는 작가의 삶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일상적 삶에서의 도피처로써 자연이 수용되고 보니 자연을 배제한 삶의 모습은 퇴폐적 현실주의를 느끼게 한다. 그는 자연에 대한 감정을 일상적 삶 속에 구체화시키지 못한 채 자연과 삶의 거리를 드러내고 말았다.

그의 소설에는 자연 속에서 맺어지는 性이 자주 등장한다. 자연은 자유로운 성, 性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그의 소설의 특징이라 할 만한 자연 친화의 감정이다. 그러나 여성적 性에서만은 그 자유를 부여하지 않고 허무의 감정을 표출시키고 있다. 결국 그는 서구적·낭만적 일면을 지우지 못한 채 동양적 자연관을 지향하였기에 意構的 자연 감정의 단면이 드러난다. 토속적 신선한 자연에 접근하지 못한 意構的 자연 감정은 일상적 삶과 자연과의 거리에서 비롯된, 그의 소설의 특징적 일면이었다고 하겠다.